

“자연 통한 치유의 힘 널리 알리고 싶어요”

온새미로숲학교 ‘오감만족 숲체험’ 행사

광주 동구 꽃메요양원 어르신 대상 테골테골너릿재 유아숲체험원서 절구질·건강 박수 등 즐거운 시간
김영순 숲해설가 “생태 복지 전파”



지난 14일 광주 동구 선교동 테골테골너릿재 유아숲체험원 잔디광장에서 ‘오감만족 숲 체험’ 행사가 열린 가운데 김영순 숲해설가가 꽃메요양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천연 속스웨그(Swag)’ 만드는 법과 활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산림복지전문업 그루터기생태숲 제공〉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생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의 힘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광주 지역의 한 산림복지 전문가가 관내 요양원 어르신들을 자연으로 초대해 인문학과 생태 체험을 결합한 맞춤형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16일 온새미로숲학교 등에 따르면 김영순 숲해설가는 지난 14일 광주 동구 선교동 테골테골너릿재 유아숲체험원 잔디광장에서 꽃메요양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오감만족 숲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산림복지전문업 ‘온새미로숲학교’ 사무장이자 ‘그루터기생태숲’에서 활동 중인 김 해설가는 유아숲지도사 등 다방면의 자격을 갖춘 산림복지 베테랑으로, 어르신들의 신체적 여건과 정서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프로젝트형 숲 체험’을 전개했다.

김 해설가는 단가(短歌)인 사철가 한 대목을 부르며 어르신들의 달린 마음을 여는 인문학 시간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어르신들이 직접 절구질을 해 속 인절미

를 완성하고, 미리 달여온 인진썩처를 곁들이는 오감 치유 체험이 이뤄졌다.

또한 숲을 엮어 실내 장식품을 만드는 ‘천연 속스웨그(Swag)’ 제작 활동과 건강 박수, 노래 부르기 등 인지 능력 향상과 소근육 발달을 돕는 활동도 병행됐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다는 김 해설가는 자식이 바치는 마지막 효도라는 신념으로 행사 재료 준비부터 진행까지 아낌없이 정성을 쏟았다.

숲의 안정감에 속 향기가 어우러진 ‘회상 요법’은 시설 내에 고립되기 쉬운 요양원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해방감을 제공했다.

현장에 참석한 A(♀·여) 어르신은 “선생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으며 속 향기를 맡으니 처녀 시절 고향 들뜰으로 돌아간 것 같아 말도 못하게 행복했다”고 전했다.

김영순 숲해설가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내 부모처럼 모시고 숲이 주는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생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의 힘을 지역사회에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신재정 광주다사랑병원장 ‘보건의로 향상’ 복지부장관 표창

광주다사랑병원은 “신재정 원장이 최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67차 정기총회에서 국민보건의로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다사랑병원은 2001년 전국 최초로 알코올문명병원으로 개원해 정신질환자와 중독환자를 분리해 전문적으로 중독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단계에 맞는 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신재정 원장은 “알코올 중독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알코올치료전문병원으로서 역할도 중요해 지고 있다”면서 “중독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회복 훈련 프로그램으로 온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금화여성회, 장애 학생 13명에 장학금 전달

금화여성회는 지난 15일 광주 서구 5·18기념 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제28회 장애인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금화여성회는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장애를 넘어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 대학생 6명과 고등학생 7명 등 총 13명의 장애 학생에게 장학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오경희 회장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꿈을 향해 노력하는 장애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92년 설립된 금화여성회는 장애인학생 장학금 지원과 더불어 홀로사는 노인 반찬봉사, 학교 밖 학생 멘토링, 자립학생 생활용품 지원, 이주아동 인권호보, 양성평등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선옥기자



전남도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협의회’ 개최

전남도는 16일 나주에서 도, 시·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가족센터 등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2026년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선 현정 중심의 협력체계 강화와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비한 정책 설계,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 등이 다뤄졌다.

특히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이 참석해 경기도의 이민사회정책 추진 사례를 소개하고 은수연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실장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 적용 방안과 향후 추진 과제가 논의됐다.

이러한 주제토론에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비한 정책 실행 방안 도출을 위해 ▲다문화 지원사업 재구조화(선택과 집중) ▲결혼이민자 학부모의 학교 참여(소통과 참여) ▲다문화에서 ‘이주배경’으로(변화와 대응) 등 3가지 주제로 조별 토론이 진행됐다.

진미선 이민정책과장은 “다문화가족은 전남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다양성을 지역의 경쟁력으로 전환해 다문화가 강점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담양 수북면 지사협, 취약계층 ‘반찬 나눔’

담양군은 16일 “수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4일 관내 한부모 가정과 중장년 1인 가구,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30가구에 반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봄철을 맞아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밀반찬 나눔과 지역사회 복지망 강화에 기여했다.

위원들은 직접 손질한 재료로 열무김치를 담고 대하 무조림 등을 조리해 전달했으며, 각각

정을 방문해 이웃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등 취약계층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에도 힘을 보탰다.

국호환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입맛을 돋우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광주 북부경찰, 교통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오전 8시부터 50분간 북구청 앞 사거리에서 광주자치경찰위원회, 북구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50여명이 참여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신호 준수와 올바른 교차로 통행 방법을 안내하고, 보행자 무단 횡단 금지와 이륜차 인도 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를 홍보했다.

양백승 북부경찰서장은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교차로 거점 근무,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홍보를 병행해 교통 사망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찬웅기자

육현진 광주대교구장, 목포교도소 방문

목포교도소는 16일 “전날 천주교 광주대교구 육현진 시몬 대주교가 목포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응원하고 따뜻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목 대주교는 직업훈련 운영 현황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주요 교정 시설을 두루 참관했다.

또한 출소 후 수용자들의 실질적인 재사회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교정 당국의 노력을 격려했으며, 수용자들을 위한 견진성사와 미사를 집전하며 위로를 건넸다.

육현진 시몬 대주교는 “모든 사람은 변화와 회복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새로운 출발의 밑거름이 된다”며 각각의 삶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길 당부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장귀남 목포교도소장은 “교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발걸음을 해주신 대주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방문이 수용자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고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한그룹, 발달장애인 백두산 등반 사업비 지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광주 사랑의 열매)는 “최근 김원만(주)새한그룹 회장이 영광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내 발달장애인들의 백두산 등반을 위한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24년 광주 아너 소사이터 18회 회원에 이어나눔기업·광주 서구아너스에 가입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영광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문화체험 확대와 정서적 휴식 기회 제공을 위한 백두산 등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원만 회장은 “발달장애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며 자신감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성기자



담양경찰, 어르신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관내 스마트경로당에 구축된 스마트TV 송출 시스템을 통해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검찰·금융기관 사칭,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저금리 대출 유도 등 최근 빈발하는 신종 범죄 수법과 실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상황별 구체적인 대응 요령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향후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인 담양시니어클럽과 연계해 맞춤형 교육 방식을 대폭 확대하고 고령층의 금융 사기 예방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양수근 경찰서장은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 밀착형 플랫폼을 적극 활용했다”며 “눈높이에 맞춘 반복적이고 쉬운 예방 교육을 지속해 실질적인 범죄 피해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광주 북부소방, 주택소방시설 구입센터 운영

광주 북부소방서는 16일 “주택 화재와 그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구입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장비다.

감지기를 통해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고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크다.

이에 북부소방서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소방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입부터 설치까지 한번에 안내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지역 내 판매업체와 협력해 검증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 방법과 설치 요령까지 함께 안내한다.

/유찬웅기자

결혼

▲권영일·최미주씨 아들 오현군, 김준수(광주 교통공사 경영본부장)·박미경씨 딸 다솜양=26일(일) 오후 2시 라온제나 강남 8층 플로렌스홀(서울 강남구 학동로47길5), 010-5256-5250.